

꽃보다 아름다운 피아골 단풍이여

아침을 열며

정연권

색향미야생화연구소장



말씨를 들어보니 서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이 혼재돼 있다. 등산로에서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 정겹고 인정이 넘친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등 말 한마디가 고맙다.

표고막터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단풍 사이로 쪽빛 하늘이 눈부시다. 산 능선과 하늘의 가름 선이 좁아 보인다. 쭉찬 한잔을 마셨다. 행복하다.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하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고맙다.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걷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실감한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청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 상큼한 향기를 맡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안락남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금이 있어 감사하다. 모두가 감사할 일뿐이다.

등산로를 따라 길을 재촉한다. 바위에 푸른 이끼가 싱그럽다. 단풍 물든 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 자연의 소리와 함께 마음이 차분해졌다. 선들선들한 바람이 스쳐 갔다. 단풍이 바람을 부여잡고 조금만 참아주라고 소곤거린다. 바람과 조금씩 비추는 햇빛이 단풍 색채를 섬세하게 살려내고 있다. 만추를 연주하며 춤추고 있다. 발아래에서 나는 낙엽의 바스락거림이 정겹다.

삼홍소(三紅沼)에 도착했다. 남명 조식이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산홍(山紅)이고 단풍이 맑은 담소에 비쳐 수홍(水紅)이며 사람까지 붉게 물들어 보인다고 해서 인홍(人紅)이라고 했다.”라는 삼홍소다. 여기에서 마음도 붉고 스마트폰도 붉어 오홍(五紅)이 됐다. 디지털 릴레이가 되어 대한민국이 붉다. 아쉽게도 잦은 폭우로 소(沼)가 많이 메워져 아쉽다. 계곡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가까이

갈 수 없어 더욱 아쉽다.

어찌하랴. 삼홍소 다리를 건너 희미한 햇빛을 받으며 바위에 걸터 앉아 추억에 젖어 보았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몸담고 있을 당시 봤던 단풍과 결이 달랐다. 행사에 참여하고 직원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단풍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혼자 여유롭게 있으니 이제 서야 단풍이 잘 보인다. 물감으로 흉내 내지 못하는 다채로운 색채를 풀어내는 단풍이 꽃보다 아름답다. 꽃이 저리도 아름다운 수 있던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이다. 멍하니 마음을 빼앗겼다. 꽃이 싱그러운 청년을 상징한다면 단풍은 원숙한 노인을 상징한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지 않던가.

단풍이 삼홍소에 하나둘 아니 수없이 많이 떨어진다. 추풍낙엽은 이럴 때 쓰는 말로다. 단풍이 떨어진 가지 사이에 한줄기 햇빛이 들어오니 풍경이 달라졌다. 시시각각 변화무쌍에 감탄한다. 낙엽에서 인생의 덧없음과 변화의 필연성을 보았다. 무상(無常)의 개념을 알게 하고 생명의 순환과 변화를 일러줬다. 햇빛은 바람과 물소리와 합의를 이뤄 사유하고 있다.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을 가슴속에 고이 모셨다. 찰나의 시간을 엮고, 지금의 감성과 풍경을 기억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승화할 시(詩)를 보태어 본다. 정호승 시인의 ‘가을’ 시를 낭송하며 하산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여유롭다.

‘돌아보지 마라/누구든 돌아보는 얼굴은 슬프다/돌아보지 마라/지리산 능선들이 손수건을 꺼내 운다/인생의 거지들이 지리산에 기대앉아/잠시 가을이 되고 있을 뿐/돌아보지 마라/아직 지리산이 된 사람은 없다.’

社說

중장거리 노선 유치 못하는 무안공항

활주로·이용객 미달

무안국제공항 미주·유럽·중동 등 중장거리 노선을 유치하려는 전남도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20일 국토교통부 및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2800m에 불과한 활주로를 360m 늘린 316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내년 완료된다. 도는 지난 2021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326억원, 올해 7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총 492억원을 들여 추진했다. 도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을 통해 기존 노선 외에도 미주·유럽·중동 등 중장거리 노선 유치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활주로 연장에도 불구하고, 중장거리 노선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타 지역 국제공항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장거리 비행 기준치보다 더 늘리고 있으나, 무안공항은 안전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연장에 나서면서 중장거리 노선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인천공항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기존 상승 등을 고려해 제3활주로를 4000m로 설계했으며, 대구경북신공항 또한 폭염 시를 고려해 활주로 여유부지 300m를 추가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A380 등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한 전 기종의 여객 및 화물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무안공항의 저조한 이용객도 발목을 잡고 있다. 무안공항 연간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100만명에 육박했지만 최근 몇년새 30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중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 100만명 이상 이용객이 유지돼야 한다고 한다. 김해국제공항은 최대 연간 이용객이 1000만명에 달하고 장거리 비행 기준의 활주로를 갖췄음에도 미주·유럽 등의 노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전남도가 공언했던 중장거리 노선 유치 계획은 현실성을 전혀 고려치 못했다는 평가다. 기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정기노선 확보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거리 노선 유치 계획이 가당키나 한지 되묻고 싶다.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존 정기노선의 안정적 공급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전남김, 고부가가치 육성 기대감 크다

‘햇바디 1호’ 위평가 경신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햇바디 1호’가 김 위평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남 김의 고부가가치 사업화에 정진호가 커졌다. 20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진도위판장에서 올해 출하된 첫 햇바디 1호가 108만원(1자루 120kg)에 거래됐다. 기존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햇바디 1호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잇바디돌김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남 해역에서 자생하는 우량엽체를 선발 육종하고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 지난해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각포자(씨앗) 방출량이 많고 김발에 부착률이 높은 데다 엽체의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양식어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엽체의 성장이 빨라 채취횟수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생산효과도 좋다. 생산량 뿐 아니라 조기출하가 가능해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첫 위판된 햇바디 1호가 첫 위판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김 양식어업인으로부터 2025년 종자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전남도의 김 신품종 개발 노력으로 김 양식이 고부가가치 사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 양식김 3종 모두를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무늬김 2종(해풍1호·해풍2호), 모무늬돌김 2종(해모들1호·신풍1호)과 잇바디돌김인 햇바디 1호의 등록으로 총 5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고 있다. 전남 김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한다. 도는 2011년부터 어가에 보급한 해풍1호로 김 생산량을 늘려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계속된 품종개발로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했고, 김 수출이 8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기후위기 등으로 김 생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 김 품종 개발은 기후위기 대응과 어가 수익을 늘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전남도가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달·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6차 시험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지난달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한 작가의 작품들이 서점가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

교보문고가 지난 8일 발표한 11월 1주차(10월30일~11월5일) 베스트셀러 순위 따르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채식주의자’를 밀어내고 다시 베스트 셀러 1위를 차지했다.

3위를 지킨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세 작품이 번갈아가며 1

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흰’ (4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

다’ (5위), ‘희랍어의 시간’ (6위), ‘디 에센셜’ (8위), ‘여수의 사랑’ (10위) 등 10위권 안에만 무려 8개의 한강 작품이 포진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한강 작가의 인기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 직후 고가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대형 체인 서점 반스앤드노블(Barnes & Noble) 매장에는 일찌감치 한강의 저서가 동이 났다.

이탈리아 극단 INDEX는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무대에 올린다.



프랑스 현지 출판사 그라세는 지난해 8월 말 처음 ‘작별하지 않는다’ 불어판을 출간해 1만3000부를 판매했는데 문학상 발표가 난 뒤 긴급하게 8000부 추가 인쇄에 돌입할 정도로 해외에서까지 한강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강 작가를 향한 관심과 파급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1회 광주 독서교육 우수학교 공모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15개교를 선정하는 등 독서문화가 확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전남 50개교가 참여하는 ‘나도작가 프로젝트 학생책 출판 작품전시회’를 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뜻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한강신드롬을 계기로 지속적인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등으로 전남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문학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조선용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